

성 찬 식

* 이 자료는 공동체훈련 또는 공동생활(수련회) 중에 사용하는 성찬식 순서입니다.

준비 : 참가인원과 공간의 형태에 따라 가능하면 원형으로 둘러 앉는다.
성찬상은 가운데에 위치하고, 성찬기와 촛대는 다양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,
조명은 너무 밝지 않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.

찬송 : 찬송가 186장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른다

기도 : 인도자가 성찬식을 의탁하는 기원기도를 드린다.

말씀 : 성경말씀은 세 곳을 순서대로 보는데,
고전 11:23-26은 인도자가 낭독하고
요 6:53-57은 인도자와 회중이 교독하며,
행 2: 42-47은 다함께 합독한다.
성경을 읽은 후에는 인도자가 짤막하게 메시지를 선포한다.

(고전 : 고난과 죽음을 기념,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자

요한 :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내재, 생명력있는 삶을 살자

행전 : 그리스도안에서 하나,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의 삶을 힘쓰자)

찬송 : 찬송가 171장과 217장을 부르되, 마지막절을 4-5번 반복하여 부르고,
부를 때마다 소리의 강약과 속도의 빠르고 느림을 흐름에 따라 부른다.

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부르고, 이를 위해 소리를 모아서 부르는 것이다.

참회의 기도 : 2-3분 정도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회개를 내용으로

신앙고백 :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.

식탁에의 참여 :

요한복음 17장(대제사장 중보기도의 장,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위해
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)을 내용의 배경을 먼저 소개 한 후에,
새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는다.

인도자가 17장 전체를 읽는 동안 침묵중에 말씀을 묵상하며,
질서있게 나와 빵과 잔을 들고 들어간다.

(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빵과 잔을 중앙에 여러
셋트로 준비하고, 찬송을 부루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)

찬송 : 찬송가 246장을 부른다

기도 : 일어서서 원형으로 손을 잡고, 세 단계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.

믿음의 손을 잡고, 이 땅의 세계교회와 인류를 위해,

소망의 손을 잡고,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.

사랑의 손을 잡고, 소속한 교회와 자신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.

축도 : 인도자가 축도한다

정리 : 축도후에 원형으로 돌며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.

이 때에 지도자는 매 사람마다 섬김과 연합의 의미로 허리띠를 매어줍니다.